





讀書의 생활화

社 說 國 사람의 讀書이 生活化 되고 있다. 最近에 우리 나라가 經濟的인 면에서 크게 發展한 것은 사실이지만 對의으로 우리와 國際的으로 競爭해야 할 나라 들도 정도의 差異는 있 으나 發展하고 있다. 스 트로츠의 문제도 그렇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던 東南 亞細亞의 스로츠의 發展은 놀라운 것이다. 일본은 東南亞細亞와 日本과 競爭해야 할 우리는 여기서 면에서 그들보 다 앞서야 하겠는데 그 러기 위해서 個人의 능력 을 發揚할 수 있는 條件에 있어서도 앞서야 하는 점이 이면 우리 國民이 크게 反省해야 할 문제다. 지금 世界의 潮流는 國家나 민족의 문제가 크게 크르르되고 있다. 冷戰時代에 크게 比喩를 차지했던 「이데올로기」 문제가 점차 消滅한 대신 國家나 민족의 문제가 크게 크르르되고 있다. 한 나라가 強해지면 國際 的인 影響이 커진다. 우리 젊은이 들은 國際의 影響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國家나 민족의 문제를 크게 크르르되고 있다. 國民 個人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外國人 한 사람의 능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國民 個人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外國人 한 사람의 능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國民 個人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外國人 한 사람의 능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南北赤會談의 成果와 우리 의 姿 勢

1 한반도에서의 南北간의 對 話는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會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획한 이래 다신타타에 걸친 南北赤十字會 代表의 會談, 24차 회의의 功績이 비평가, 그리고 13차의 실무자 회의 등 무 러 1년동안 계속해온 남 북간의 對話는 급기야 지난 8월 30일 제 1차 본 회의의 功績에서, 제 2차 본 회의의 9월 13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① 가족 復舊의 주축과 ②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③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④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⑤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⑥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⑦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⑧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⑨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⑩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⑪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⑫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⑬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⑭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⑮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⑯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⑰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⑱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⑲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⑳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㉑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㉒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㉓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㉔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㉕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㉖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㉗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㉘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㉙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㉚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㉛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㉜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㉝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㉞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㉟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㊱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㊲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㊳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㊴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㊵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㊶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㊷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㊸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㊹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㊺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㊻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㊼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㊽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㊾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㊿ 2차 본 회의의 주축과



가축사육장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계 소농장도, 축산물위 주로한 시설을 개선, 한창 품을 일으키고 있는 가축 재배 자립농장으로의 뒷바 라지도록 본도의 발전과 는 너무도 밀접하고 차분히 에기를 계속하는 한성축 교수님은 가축들의 입이 열 리는 한 가축들의 급수, 급식은 열 틈이 없다. 마라사 삼배 예산날 유일 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가축들의 심부 름은 사육장 관리인인 축 품종별 종축을 도입 사육 도 시급한 문제가 하겠다 예산배가 가능하다면

N.R.O.T.C 단장 대령 김 옥 진

제가 마스함을 느끼기에 무 치에서 보더라도 적성국가 인 中共과도 가깝고 또한 세계에서도 그 힘이 강력 해지는 의지가 생겨나겠다고 하는 N.R.O.T.C에 대해서 는 제주대학의 지역사회적 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 濟州道가 海洋國家의 地位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김 옥 진 단장

老 선수들의 묘기(?)

10월 13일 농 학부 교정에서는 史上 최 초로 개최된 체육대회인 老(?) 선수들이 묘기(?)를 보였는 데, 교직원들의 靑년도모라는 목 적을달리 임 중하도 학교 단교편면과 선수단과의 會 見에서 학군단에게 부 정선거가 있었다는 시비로 개입이 불수되기도, 부정선 수를 건 일도 나쁘지만 선 선거에서 개입을 불수시 기인 일도 우습지 않으나 그 참관한 학생들은 수군수군 요즘 전선 경기는 요령 게 되는건지요?

비롯한 자국의 「인민의 표 제정의 다양적 변화추이 가 그것들이다. 우리들 둘러싼 아세아태 평양 지역의 경제의 변동 만을 보더라도 양국회담상 에서 다루어질 세계로, 다 국화의 형태는 다시 지역 국가간의 협력(Sulregion of bloc)에 의한 세계적 의 형성단계로- 일제내셔 로운 전기의 성립을 촉구 해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동서해방무드가 선봉전쟁의 하나로 지적 하여 무방할 것이다. 최근 의 월남전쟁의 주이, 덕은 독트린, 중공세력의 팽창과 UN가입, 일본의 잠재력비 대와 田中-주은회담정착의 실현, H本的 대만주교 단결등 일련의 정세가 이 를 알 표현하고 있다. 비록 남북간의 대화는시 작되었다하더라도 아직도우 리의 대한민국의 주이, 덕은 독트린, 중공세력의 팽창과 UN가입, 일본의 잠재력비 대와 田中-주은회담정착의 실현, H本的 대만주교 단결등 일련의 정세가 이 를 알 표현하고 있다. 비록 남북간의 대화는시 작되었다하더라도 아직도우 리의 대한민국의 주이, 덕은 독트린, 중공세력의 팽창과 UN가입, 일본의 잠재력비 대와 田中-주은회담정착의 실현, H本的 대만주교 단결등 일련의 정세가 이 를 알 표현하고 있다.

동문 생활

이달에는 제주대학교교원 동문생활을 찾아 전지한 대화 를 마음껏 나누어 왔다. 신선타타는 濟州大學 院과 1회를 졸업하신 뒤 몇 개월 전까지 제주대학교 교 정에서 근무하시다 72년 3 월 1일자로 전지한 대화 전 교원이어 일방언어(교양영 어)와 관료어(관공어)를 담당 하고 있다. 이날 신선타타는 우리 기자들을 배우반 가히 맞으시며 다음과같이 말씀 하셨다. 요즘 사회의 눈을 주목 시키고 있는 통합문제에있 어서 학교당국에서 어떤결 결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의의가 고려되어가 있고 있는 것 같다고 하피를 더 수동적인 점을 목시하 고 능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하시며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학 생들의 자제가 어렵다고 말 하셨다. 「폐허」- 잔혹 저주 리다가 소박비라도 내려줄 아저런 꺼져 들어갈듯하고 요요이 있다. 그때로 사방 이 무너지고 제 깃대로방 구는 돌덩이와 무덤과 잡 초가 우거질대로 우거진 Campus 주변을 탐험하 겠 어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



신 홍 식

기자지

1-讀書週刊轉轉을 취재 하러 나간 記者의 눈에 비친 도서관은 묘한 풍경이었고 있었는데 그도 그렇듯이 빙 빈 도서관엔 파란 난리였고 그와 보름을 같이하여 을 기진 학생들의 빈축을 도서관 직원들은 하품만 연 반. 독서의 필요성을 力勵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 刊 詩 誌

- 民族詩의 定立과 方向. 民族詩와 思想... 具仲書, 民族詩의 歷史的 意義... 崔一秀, 民族詩의 概念과 그 方向... 張伯造
- 詩 自 畫 像... 金宗文, 葛藤의 꽃... 朴기遠, 記憶에의 距離... 金次榮, 外 12人的 作品
- 海 外 詩 壇 自由中國詩人 아현氏 會見記, 五千萬의 詩壇(讀者作品)
- 詩 壇 月 評 두 詩人이 詩를 讀다... 具滋雲, 感覺·言語·表現... 白承喆
- 연 재 강 좌 ④ 現代詩 作法 강라... 文德守

文學思想 2輯

- 小説 殘忍의 季節... 張龍鶴, 馬鹿列傳... 徐基源, 손님처럼... 鄭然喜
- 李麗英장군의 小説 :北極風情畫:
- 世界의 傷處와 世界文學의 共同意識 - 손제니친의 小説文學賞 地下演說 全文, 제임스 로이스 遺稿 <나 머포튼>
- 評 論 黃顯元 代表作 自選自評 一談錄 取材
- 金東仁의 文學과 思想 自然主義와 理想의 葛藤... 白鐵·金烈圭·金柱演, 東仁의 唯美主義와 리얼리즘... 金治洙



- ☆ 때마다 年例적으로 도서
- ☆ 주간이 되면 언제나 「
- ☆ 冊 읽기 운동」이 벌어
- ☆ 지다. 이와같은 운동이
- ☆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 ☆ 항상 책을 읽는 國民,
- ☆ 책을 읽는 學生이 될수
- ☆ 는 없을까? 本大學人

讀書週間 (特輯)

圖書館 얼마나 利用하나

은 과연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報 112호에는 특별으로 濟州大學의 도서관 利用實態를 엿본다.

(편집자註)

1. 圖書館과 大學生活

흔히들 大學을 가리켜 「知性的 殿堂」이라고 한다. 또한 大學은 그 목적을 學問研究과 지도적 人格형성에 두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존엄성중의 하나는 속세의 온갖 아귀다툼에 물들지 않고 가장 청순하고 생기발달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의 논쟁자가 빛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대학생활은 남만을 즐기면서도 좀더 나은 학문의 탐구라는 데 명심하며 뛰어놀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좀더 有益하게 보려면, 다시 말해서 번쩍이게 되고 싶은 지성의 논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의 책을 더 읽음으로써 남보다 그만큼 더 나은 지성을 가지게 되고 남보다 더욱 공교한 지도자적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C 독일의 대학생활도 그를 나름대로 두 번 처음에 학문의 탐구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大學生活에 있어서 도서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대학생활과 도서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병폐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학교당국이나 도서관 당국의 예산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좀더 규모 갖춘 도서관으로 발전하려면 학교당국에서 이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가독이나 부족한 장서량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캠퍼스가 濟州市와 서귀포시 분리되어 있어서 장서 또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안은 農·水産學部 도서관 所藏)

1. 總類~1,277권(536권) 합계 1,813권
2. 文學~658권(56권) 합계 709권
3. 宗教~217권(152권) 합계 369권
4. 社會科學~5,373권(1,320권) 합계 6,693권
5. 순수과학~779권(381권) 합계 1,160권
6. 기술과학~962권(713권) 합계 1,675권
7. 藝術~371권(620권) 합계 991권
8. 醫學~1,109권(1,291권) 합계 2,400권
9. 文學~2,832권(589권) 합계 3,421권
10. 歷史~1,223권(1,507권) 합계 2,730권

學研究가 많은 法文學部에 는 어학관계가 1,109권으로 農·水産學部의 그것보다도 작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畜産學을 보이고 있으며 社會科學 分野가 6,693권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文學, 역사, 醫學의 순이고 제일 작은것은 종교분야로서 겨우 369권을 지니고 있다.



(한산하기만 한 도서관 열람실)

또한 장서 年度別 증가 현황은 表(1)에서 보는바와같이 초창기인 1955년에 1964년까지는 겨우 9,071권 만을 보유한채 도서관의 명맥만을 유지해왔고 그 후 이듬해인 1965년에 와서 4,762권이 대폭증

적인 圖書실력이 부족한本大學人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남아 떨어진 古書가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해마다 많은 도서관가 손 또는 분실되고 있어서 사용자 스스로가 좀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와같은 사실을 명백히 알 수가 있는데 개관일수 209일 동안에 총 15,782명이 도서관을 찾았다. 이는 1971년의 日平均 62명보다 13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서관이 이용자의 관심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藏書量의 부족과 또한 연구하고 진리탐구에도 해당하는 濟州大學의 격다른 점에 그 중요한 원인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인 數보다 많은 학생이 찾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원한지나 신문등을 열람하고 있다고 圖書館에서 귀찮게 주기도 한다.

한편 表(3)에서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71년도에는 하루 평균 학생이 11명을 초과하여 15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72년도에 와서 학생이 하루평균 13명을 초과하여 22명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學生보다는 敎職員이 도서관을 많이 찾는 편인데 이에 우리 濟州大學은 다시한번 반성하고 大學人다운 학문연구에 노력하여 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당국은 장서부족 및 도서관 운영 반납기일 경과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이 요구하는 도서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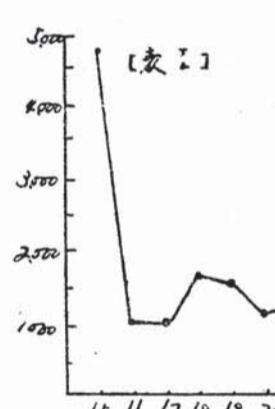
文學關係 圖書 대출이 最高

學校當局의 적극적 지원 아쉬워

가되어 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1967년에는 아세아 재단에서 95萬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아 총 1萬6천권의 장서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매년 1千3百여권의증가되어 오늘날에는 총 21,961권의 도서를 확보하는

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릇 대학본연의 자세가 진리탐구라 할진대 本大學의 도서관은 이러한 자세를 충족하는 바로 메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고차해야 고사기장이니 이용자는 학생들이

부 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화별 도서관 이용도분포를 보면 表(2)에서 보듯 장영과가 511명으로 가장 많고 국문과가 502명, 법학과 492명, 數學敎育科, 영어교육과 순으로 되어있다. 한편 대출도서를 분류별로 보면 대학분야 관계서적 대출이 전체의 36%



(表1) 1965~1971년 도서관 대출 현황

구분	개관	총일	일평균	인원	
연년도	일수	람자	일평균	인원	
1971	342	16,033	1,625	62	
합계	1972	209	15,782	1,754	75

구분	학	생	교	직	원	계	
연년도	권	수	권	일평균	인원	일평균	
1971	3,295	274	11	189	15	3,484	
합계	1972	2,567	285	13	197	22	2,764

학부 도서관이 장서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學生 대부분이 법문학부에 몰려 있어서 일어나고 있으며 農·水産學部 도서관은 겨우 7천여권으로 아직까지도 문고형태의 도서관에서 팔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의 장서보유 현황에서 보면 보다 더

로 있어 지금도 학부중심은 요원한 感이 없지 않다.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濟州大學은 1일평균 75명이 도서관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한산하기만한 도서관이다. 또한 1972년 1월부터 9월20일 현재까지의 도서관 이용도분포를 보면 이

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16%, 철학 13%, 역사 11% 순이며 예술분야관계서적은 전체의 1% 밖에 대출되지 않아 가장 낮은 편이다. 이에서 보면 본대학생들이 주로 문학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편 學科別로는 경영학과가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

圖書館 運營上의 問題點

司書 梁 元 錫

우리 대학이 창설된지 20년 國立으로 이관된지도 벌써 10년이된 세는 중립적으로 지인해야 할 시기에 다른 초창기보다, 또는 수년전보다 발전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도 오늘날의 현실이다.

「大學」하면 우선 머리 에 떠오르는것이 전체의 「 캠퍼스」를 생각키는것이상이지만 이는 의외적인것 인데 사실에서 인식되는 편이요, 그 대학이 내적으로서 어느정도 충실해 있으나 참 에는 총서각 대학의 도서관이 어느정도 충실한영역이고 있는가 하는것을말 한다.

다. 경제건설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의 바탕이된 도서관의 책정중에도 이제 는 중립적으로 지인해야 할 시기에 다른 초창기보다, 또는 수년전보다 발전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도 오늘날의 현실이다.

「大學」하면 우선 머리 에 떠오르는것이 전체의 「 캠퍼스」를 생각키는것이상이지만 이는 의외적인것 인데 사실에서 인식되는 편이요, 그 대학이 내적으로서 어느정도 충실해 있으나 참 에는 총서각 대학의 도서관이 어느정도 충실한영역이고 있는가 하는것을말 한다.

다하더라도 하라못해 자기 책을 가지고서라도 도서관에서 읽는 습성을 길러야겠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므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것은 학교당국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을 예로볼때 도서관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도서관의 발전은 그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열람실이 언제나 만원을 이루고 있을 때, 자료구입비의 增額問題 또는 도서관봉사를 위한 人的資源문제 나아가서 도서관시설의 확충문제등이 저절로 해결되리라 보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도서관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과거는 보듯 거북이 걸음일지라도 점차 발전하고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원한 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大學設藏基 礎에 의한 최소한의藏書量은 一學科當 5萬권이 13學科이면 七萬五 千권은 보유되어 있어야 하겠으나 그 약 4분의1 인 2萬여권밖에 收果하지 못 한 실정에 놓여있다. 理由가 어찌된 담담하고 한심스런것이 없는 일이

다. 경제건설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의 바탕이된 도서관의 책정중에도 이제 는 중립적으로 지인해야 할 시기에 다른 초창기보다, 또는 수년전보다 발전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도 오늘날의 현실이다.

「大學」하면 우선 머리 에 떠오르는것이 전체의 「 캠퍼스」를 생각키는것이상이지만 이는 의외적인것 인데 사실에서 인식되는 편이요, 그 대학이 내적으로서 어느정도 충실해 있으나 참 에는 총서각 대학의 도서관이 어느정도 충실한영역이고 있는가 하는것을말 한다.

다하더라도 하라못해 자기 책을 가지고서라도 도서관에서 읽는 습성을 길러야겠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므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것은 학교당국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을 예로볼때 도서관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도서관의 발전은 그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열람실이 언제나 만원을 이루고 있을 때, 자료구입비의 增額問題 또는 도서관봉사를 위한 人的資源문제 나아가서 도서관시설의 확충문제등이 저절로 해결되리라 보는 것이다.

提 言

圖書不足이 큰 問題

도서관 제3조 3항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습, 교양, 조사, 연구 및 리트리미네이션 그 이용에 供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도서관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그러기에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용이 극히 저위인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선 도서관의 운영에서 찾고 싶다.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 영구보관시켜 두는 것일까? 앞선 바와같이 지적되던 더욱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濟州大學人이다. 그럼에도 강의 시간에는 문을 열지만 그의에는 열람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재학생이 전 정 필요로 하는 시간은 강의 전후와 휴일임을 아는 자 모르겠는가?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 영구보관시켜 두는 것일까? 앞선 바와같이 지적되던 더욱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濟州大學人이다. 그럼에도 강의 시간에는 문을 열지만 그의에는 열람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재학생이 전 정 필요로 하는 시간은 강의 전후와 휴일임을 아는 자 모르겠는가?

도서관 選定 必讀書

「철학이란 무엇인가?」「의정 自傳」「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老子 「道德經」 칸트 「純粹理性비판」 불스토이 「人生論」 洪自誠 「재근담」 어거스틴 「참회록」 토인비 「歷史의 研究」 威爾遜 「뜻으로 본 韓國史」 「공산주의 이론과 實踐」 플라톤 「國家論」 몽테스키외 「法の 정선」 아담스미스 「國富論」 탈라스 「人口論」 무소 「에밀」 楊芝薰 「한국문화 사색」 金壽吉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 세익스피어 전집 단테 전집 노-베 전집



은 한마디로 도서관운영의 일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당국의 충도 충분의 인정한다. 그러나 한마디 묻고 싶다. 자료적 지원은 아랑곳없이 폐기식으로 고칠 후에 얼마만큼이나 개개인을 고쳐야 했던 근본인인지 저거했는가?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 영구보관시켜 두는 것일까? 앞선 바와같이 지적되던 더욱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濟州大學人이다. 그럼에도 강의 시간에는 문을 열지만 그의에는 열람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재학생이 전 정 필요로 하는 시간은 강의 전후와 휴일임을 아는 자 모르겠는가?

「國文學報」는 國文學會員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國文學報

濟州大學 教育放送室(JBS)에서는 新學期를 맞아 좀더 알찬 放送, 濟州大學의 放送을 보내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放送프로그램을 개편 합니다

다 음

	月	火	水	木	金	土
A·M방송	발경음도가 법계 경음악중심 학원소식과 세계정세	"	"	"	"	발경음도가 법계 Sem i-Class 8:30~8:40 이주의 화제 8:40~50 학원소식 8:50~9:00
P·M방송	12:55~1:00 1:00~1:25 1:25~1:55 1:55~2:00	경음악 하이 라이프 클래식 이주일의 팝송 1곡 1:00~1:10 1:10~1:30 작품낭독 학원소식	목요 팝송 1:00~1:55			

1. 대 상 : 국문학과 교수 및 학생  
2. 종 류 : 논문 (50매내외) 및 자료  
3. 제출처 : 국문학회 연구실  
4. 기 간 : 1972년 10월 25일

1972년 10월

국어국문학회

경영학회에서는 학회지 「經營論叢」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1. 대 상 : 교수 및 학생  
2. 종 류 : 논문 (50매내외) 및 자료  
3. 제출처 : 경영학회 연구실  
4. 기 간 : 1972년 10월 25일

1972년 10월

경 영 학 회



# 담배 한가치

안종식 (제조·4)

어쩌다보면 한가치뿐인 담배갑을 만지작거리며 허전한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다. 한갑을 사서와 이 사스의 뒷주머니에 성냥과 함께 끼어 넣고 아찔하게 짐을 나서는 것은 두둑한 뱃짱과 상쾌한 아침에 더욱이나 좋은 기분으로가 느껴질까? 마음엔 우물거리며 나서는 끝바라 학교집을 걸어가다보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쌓여올린 공장과 같은 학교건물이 고개를 막아 손이 아릿아릿하게 욕망에서 흘러버린 물속에 거무죽죽한 자태를 나타낸다. 한 학생이 모여서 목욕의실이 같은 학생끼리 207강의실에서 들어선다를 즐긴다 강의를 들으며 부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 애를 쓰며 여남고가의 담배가 연기로 화하고 나면 자옥한 연기속에 아찔한 상쾌함이 서서히 사가면서 강의가 시작된다. 백분강의가 끝나면 졸란 복도에 나와서 다시금 담배를 피우는데 전제이다. 반하보는 S성의 푸르른 가을이 아직도 푸르름을 가득히 간직하고 있는것이아니의 순례에 어긋난 고독은 사생아처럼 쓸쓸히 독박을 하고 있는듯하다. 버릇처럼 담배갑에 손이가고 담배를 불이려는데 K형이 담배 한가치 달라기에 신통 내준다.



「A형! 요사히 경제가 풀렸는지 신란진이 아니고 청자이군!」 「글쎄요!」 「그런데 요사히 담배는 뭐가 유별인가봐요!」 「아예 돈이없음 끊어버리던지 남이 피우던 풍조를 주어피우던지 하시지 말고 신사복처럼 담배한가치 빌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인데요!」 「너무나 지나친 말이었던지 K형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시금 강의실에 들어간다.

그러나 밤에 이들을 비추어주는 촛불은 승고한 학생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여러가지의 말보다도 쉽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렇다담 담배도 이최대한 가치가 탈때마다 사회의 화와 복지에 대한일을 하도록 정신적 개혁과 재우침에 타서 없어진다던 담배갑을 떠나서 한가치 무가치 타서 공기속으로 흩어지는 보양연기처럼 인지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아 정화의 선악이 된다. 담배 해로운은 그렇게 강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침착성을 갖게하는 사회의 참담하게 담배로 요사이의 배가 바뀌어 질수는 없을 까 하고 터무니 없는 상에 것이 보기도 한다.



# 노을의故郷

김순욱 (가정·1)

네, 너를 향한 마음은 빈 공기로부터 열려 두 팔을 허우적 거린다. 영정을 달리하던 아득한 곳에서의 긴 행군(行軍)은 밤으로 피곤하였다. 그날, 노을무렵에 나도, 너도, 얼굴은 상기 뻘었지. 지금도 더 붉을 그향의 동심(童心)에 시들지 않은 천혜(天惠)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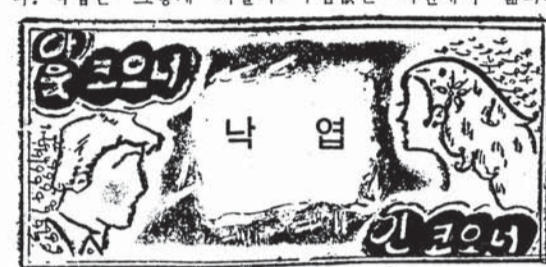
그렇게 거리가 붉은 날이면 내 눈에 익어가는 정다운,

만단정화(萬端情話)기인 얘기. 어느 사람과 이마를 마주해나. 오늘, 나는 붉은 밤새에 취(醉)해 수다한 거리의 소식을 전한다. 「당신으로 인한 은혜(恩惠)스런 이 거리는 습성(習性)을 벗어 던진 과감(果敢)한 혁명자(革命者)들과 자유로 향하는 것만이 필적입니다.



# 배진현(어르·1)

10월이면 가을이 무르익는 달이다. 삼라만상은 저울을 맞기위해 몸짓장 하하는 달이기도하다. 낮은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점점 높아지면 연산의 바위와 구겨진 산길의 주름살이 보일 정도로 눈부신 햇빛이 쏟아진다. 조금 더 기다리면 중심을 못 찾듯 우수수한 열이 떨어진다. 그리하여 가을의 일타는 끝난다. 그칠 줄 모르며 푸르던 강하게 타오르던 심정의불꽃은 때없이 떨어진다. 그것이냐. 그것은 그 옛날의 개선용사들이 쇠피하여 사라졌듯이 그것도 그렇게만 되는 것인가. 낙엽이 수북히 쌓인 산길을 거닐면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쓸쓸하다.



다. 다시 땅속으로 사라지는가 보다. 나는 가을을 떠날 것을 강하게 느낀다. 오직 나만이 느끼는 감상은 자기들의 일일한 평생을 지수시키기 위해 無限大數의 大計가 있을 것이다.

# 김정임(가정·1)

더 자랄 것도 숨길 것도 없는 그때입니다. 낙엽이 내 허무의 짐메기-내 가면입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는 날 나는 비로소 신일에 서 있는 참다운 자기일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거름이 되어 내 뿌리깊숙이 스며들 때, 하얀 눈에 덮혀 나무는 재생을 위하여 깊은 침묵의호수에 잠겨 마지막 결실을 맺습니다. 나무는 호수에 비취됩니다. 이제는 저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다는 믿음과 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일 두일 낙엽이 떨어집니다.

◇韓國과 東洋(全海宗著) 한국의 전통이 이루어진 東洋의인 배경을 史學者로서 저자가 그동안 新聞雜誌에 발표했던 글을 모아 체계있게 정리하여 韓國史學에 대한 엄밀한 비판과 史觀의 定立을 서술하고 있다. (일조각판·국판 240면 1,200원)

◇「이스라엘」 精神과 敎訓(宋在洪著) 민족離散 1천 8백여년간에 독립을 이룩한「이스라엘」이 14개「아랍」國에 둘러싸여 國家를 지키는정신에서 우리는 배울 바가 많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世界史에 있어서 類例없는 受難을 겪은 유대민족이「이스라엘」나라를 지

켜가는 노력은 우리민족이 현재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는데 너무도 커다란 교훈이 된다는 것. 이런 주장에서 「이스라엘」古史民族史·受難史·宗敎·獨立·軍事制度·精神武裝·建設相 6日戰爭·계몽라 전술등을 살리고 우리민족의 정신 무장에 관해 논하고 있다. (共和出版社·국판·283면·700원)

◇ 歷史의 여물에서 (토인비著) 세계적인 역사가「아놀드 J·토인비」와 그의 장남 「필립·토인비」와의 대화를 수록했다. 原題는「意見(崔赫洵譯·汎文社刊·233面·5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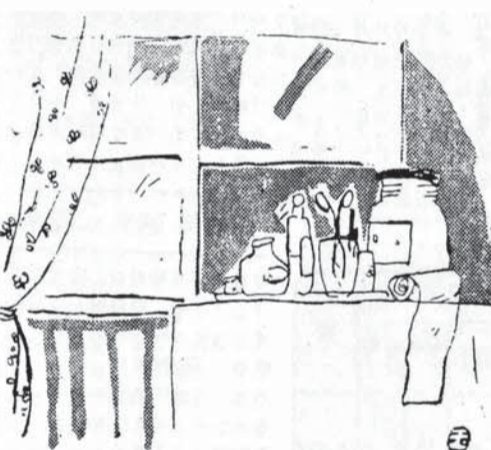
# 손으로된 遮陽

글 김성욱 (國文·一) 그림 김성욱 (英教·一)

「登場人物」  
女人A 「博愛병원」의 女 醫師  
女人B 「상회」라고 불리  
운다.  
女人C 「상회」할머니  
女人D 「순애」라고 불리  
운다.  
青年 「영리」라고 불리  
운다.

「곳」 어느 漁村의 博愛병 院.  
「때」 現代, 暴雨가 퍼붓는 여름철.  
「무대」 간소하고 소박한촌 民들의 自給生活를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한다. 劇의 背景인양, 심지를 가느다랗게 두는 호통불이 무대 중앙에서 흔들거 리고 있으며 바로 그 밑 에는 진로용인 사무용 데스크가 놓여있고 책들이 (대개는 의학 전문 서적인 듯이 보이는) 두툼한 부피 의 것이) 그 위에 몇권 쌓여 있으며 또, 별 기교 없이 만들어진 볼품없고부 박스런 꽃병이 커다란 다 리아 송이들을 잔뜩 안고 있다. 그 외에 뒷벽에 진 로용 카운터와 간판이 몇 벌 걸려있고, 위풍이 있어 보이는 약정인 의의 차이 치 않은채 놓여있다. 또 한 평평히 딱딱해 보이는 침대가 전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이로 처진 커튼이 그것을 적당히 가 리고 있다.

참, 책상 위엔 보다가그 대로 두고 나간듯한 성경 과 찬송가가 단정히 놓여 있고 예수의 초상화가 무 대 적당할 곳에 붙여져있 는 걸 잊지 않도록 하자 . 양 벽은 필수 있는 限 좁게해서 무대가 길게 보 이도록 만들고 劇의 진행 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 는 수 있도록 하여 여의 사의 思想의 世界를 의미 대체로 선율을 넣어 보이 는 마르고 날카로와 보이 는 편으로 잘날같은 자존 심과 뱃속같은 자기 부지 때문에 살이 붙을 것 같



나머지 장치는 죽음을막 아준다.  
나의 머리 위에는 나 는 이미 알고 있다. 암흑의 울림을 가진소 리가 나무일처럼 반해 놓은 랍색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얼굴의 붕괴 를 느끼고 있다.  
나죽한 의침 소리처럼 휘어 떨어지며 나는 공허 속으로 뛰 어 들어간다. 죽음의 바로 뒤를 지 나서 그리고 느낀다 그것은 이미 내가 아 니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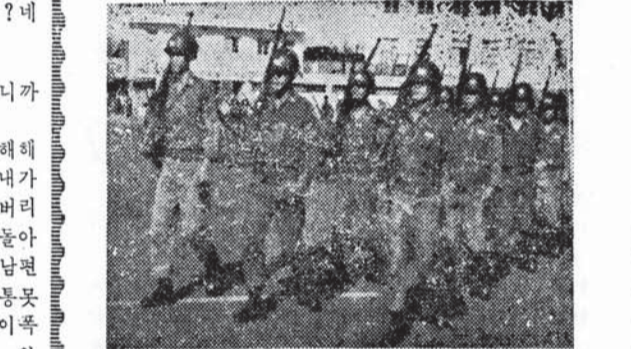
아 보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의모용이 그 약한 몸에서 배어 나 오는데도 굳이 숨기려고애 쓰는 것 같이 보인다. 반면 청년은 폐적이 증 교, 人情이 많아 보이고겉 형이 좋은 반듯한 머리의 20대 청년이다. 青年, 女醫보다 먼저 왕 진 가방을 들은채 무대보

「女人A」(중얼거리듯 이) 그 할머니가 격정야, 그 나이에 그 높은 언덕 에서 걸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야, 영리가 보기에 어 때요? (약아가며) 말해봐요 ? 어떤지 알아요? 「青年」(손을 비비며) 제가 뭘 알아야지요. 박선 생님이 살아 계시면 그런

「女人A」(중얼거리듯 이) 그 할머니가 격정야, 그 나이에 그 높은 언덕 에서 걸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야, 영리가 보기에 어 때요? (약아가며) 말해봐요 ? 어떤지 알아요? 「青年」(손을 비비며) 제가 뭘 알아야지요. 박선 생님이 살아 계시면 그런

「女人A」(중얼거리듯 이) 그 할머니가 격정야, 그 나이에 그 높은 언덕 에서 걸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야, 영리가 보기에 어 때요? (약아가며) 말해봐요 ? 어떤지 알아요? 「青年」(손을 비비며) 제가 뭘 알아야지요. 박선 생님이 살아 계시면 그런

# 國軍의 날 記念行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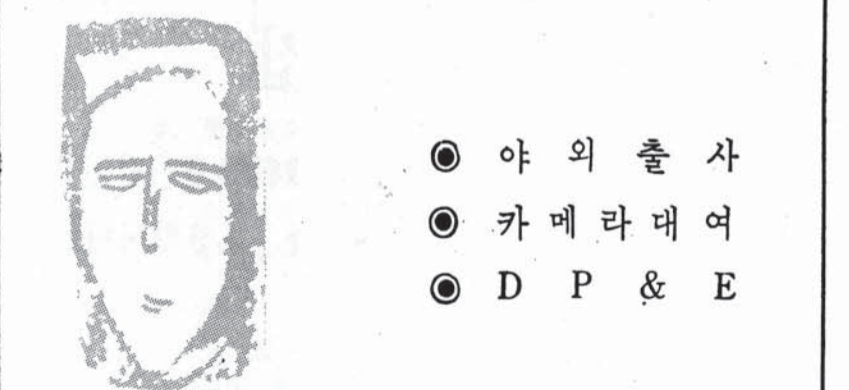


「國軍의 날」스물네들을 기념하는 記念式과 行軍이 지난 10월 1일사라봉「忠魂 墓」에서 성대히 거행되 었다. 김옥진 濟州地城軍 司令 및 오희철 육군 R·O·T·C 단장등 도내 軍 高位層과 현역군인 및 육 해군 ROTC 후보생 전 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전물장병에 한 분향 및 獻花式을 가 졌다. 한편 이날 本大學 A·N ROTC후보생 전 원이 사라봉까지 단독군 장을 하고 行軍을 벌여 배 우며 싸우는 濟大人의 늠 른 모습을 자랑했다는데 軍官-는 다음과 같다. 本大學→南校→中央路→ 忠魂墓

# 文化短信

華文化祭가 40만이 다합 계 향토 문화를 창달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1 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계 주도 일원에 걸쳐서 행하 여 진다. 11월 14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 건야제를 기점으로 하여 축제의 막이 오 르는 이번 한라 문화제에 는 탐라 미인 선발대회와 민속 무용제, 새마을 민속 행렬 경연등 다채로운행사 가 안착되고 소박하게 벌여 달을 다짐하는 제11회「漢

# 젊음의 낭만을 간직 하시려면



● 야외 출사  
● 카메라 대여  
● D P & E

서문사진관 [제주시청 서쪽]

다 실 湖 水 (TEL 4881)

# 讀書新聞

여러분은 讀書新聞을 아십니까?

국내 出版業界를 대표 하는 60個社가 모여서 온갖 精誠을 들 여 만든 新聞입니다.

가 쓰는 原稿 七百餘枚가 每週 掲載된 다. 七百餘枚의 原稿는 보통 B 6 판 紙의 分量입니다.

政治·社會의 속된記 事는 있읍니다. 오직 品位있고 有益한 敎養物! 바로 그것만이 內容입니다.

每週 讀書生活를 알자 게 할수 있는 三千萬의 讀書家族를爲 한 敎養新聞입니다.

바로 당신의 敎養을 높여주는 綜合週刊 文庫입니다.

여러분의 오락처는 단연 「원동」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완벽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동당구장 [중앙로 YMCA앞] TEL 3336